영업망 최적화, ICT기술 융합… 中企금융 초격차 유지

새해 새 전략… 쏘왓 (So What)

김 도 진 IBK기업은행장

제조업 밀집 산업단지 현장 방문
지방 中企 의견청취 등 소통행보

中企금융 점유율 22.6% 압도적
디지털 플랫폼 강화, 데이터 활용
신성장·혁신성장기업 지원 총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올해 첫 일정으로 거제, 통영, 진주, 여수, 순천 등의 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모두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현장 직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보였다.

김 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성장 유망지역과 산업단지 등에는 영업력을 더욱 집중해 '중기금융' 초격차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게 포용적 잣대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중소 제조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 中企 대출 150조원 돌파…"초격차 유지"

기업은행의 중기대출은 금융권 최초로 150조원을 돌파했다. 중기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22.6%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기금융 경쟁은 2라운드에 접어 들면서 올해는 그야말로 '초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김 행장의 중기금융 초격차를 위한 전략은 영업망 최적화다.

그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키워드는 최적화"라며 "중기금융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점포 효율화와 산업단지 집중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도 강화한다. 김 행장은 "'오직 중소기업'이란 사명감으로 준비해 온 중소기업 경영지원 플랫폼인 'IBK 박스(BOX)'를 통해 57년 중기금융 역량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은행이 되는 것도 올해 목표 중 하나다.

그는 "미래 금융의 핵심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을 융합해 개인별, 기업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활용해야 고객의 세밀한 필요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고, 150만 기업고객과 1500만 개인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행장은 "신성장·혁신성장 기업을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과 금융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 거점에도 IBK창공을 추가 오픈해 혁신적인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미래가치에 기반한 IBK형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IBK 아시아 금융벨트 완성할 것"

기업은행 창립 이후 첫 해외은행 인수합병(M&A)인 'IBK인도네시아 은행'의 설립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프놈펜에도 새롭게 진출했다.

김 행장은 "이제 12개 나라에 63개의 해외점포를 가진 명실상부한 글로벌 뱅크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IBK 아시아 금융벨트'완성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고, 이 여정의 끝은 반드시 성공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에 진출하는 것보다 나라별 현지화, 최적화를 통한 성공적인 안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임직원의 시야와 관심도 전 세계로 향해 은행들이 무엇을 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해 가는 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에서의 현장경영도 더욱 강화한다.

김 행장이 새해 첫 영업일에 이동한 거리는 총 1060㎞에 달한다. 8개 지점, 120여명의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는 취임 초부터 고객과 현장을 가장 중요한 경영의 축이라고 강조하며, 임기 중 전 영업점을 방문해 전 직원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428개 영업점, 총 8370여명의 직원들을 만났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신한은행 권오형 본부장(왼쪽)과 마인드 솔루션 디지털 최고운영책임자인 제이콥 라파엘(COO Jacob Rapael)이 지난 11일 신한은행 인도본부에서 전략적 디지털 제휴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인도본부

자금지원 비대면 상품 '디지털 팩토링 론' 출시

신한은행은 인도본부가 '디지털 팩토링 론(DFL·Digital Factoring Loan)'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털 팩토링 론'은 현지 우량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할인 매입하는 일반적 운전자금지원 상품이다. 기존 여신상품과 달리 고객확인부터 대출실행 및 상환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도본부는 1996년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지화 경영을 가속화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리테일 여신 1억 달러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창출했다"며 "이번 '디지털 팩토링 론'을 출시해 인도 내 네트워크 열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통한 외국계 은행 선두자리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인도본부는 현지에 최적화된 디지털 플랫폼 운용을 위해 인도기업 마인드솔루션(MYND Solution)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플랫폼 자체 구축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극복했다. 이와 함께 '기업 상거래 결제(Supply chain) 금융' 등 다양한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저축은행중앙회장이 뭐길래… 民-官 7파전

업계출신 4명, 官 출신 3명 지원
회원사 표심잡기 물밑작업 치열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조성권 전 예쓰저축은행 대표, 박도규 전 SC은행 부행장, 황종섭 전 하나저축은행 대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한이헌 전 국회의원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자리에 민간과 관 출신 인사 7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향후 판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 민간 출신이 유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등 금융당국과의 관계를 위해선 관 출신이 유리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에 마감된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에는 민간 출신과 관 출신 인사 총 7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간 출신으로는 남영우(65)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조성권(64) 전 예쓰저축은행 대표, 박도규(63) 전 SC제일은행 부행장, 황종섭(61) 전 하나저축은행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관료·유관기관 출신으로는 한이헌(75) 전 국회의원, 박재식(61)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성목(58) 서민금융연구원 원장(금감원 국장 역임)이 입후보 서류를 냈다.

민간 출신 인사 4명과 관료 출신 3명이 경합을 벌이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 일각에서는 업계 출신 회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중앙회장은 이해관계가 다양한 저축은행의 희망사항을 잘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업계 출신 인사가 이같은 요구 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규제완화 등의 문제에서 금융당국과 강한 교섭력을 가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력 후보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민간출신 인사가 아무리 업권을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을 모르면 소통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소급적용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강해 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한 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결국 중앙회장 자리에 민간 인사가 올 지, 관료 출신 인사가 올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라고 덧붙였다. 회원사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저축은행 회원사의 표심을 잡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적격성 심사를 통해 단독 또는 소수의 복수 후보를 추리고 16일 후보를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최종 선거는 오는 21일 진행되며 회원사 과반이 참석하고, 출석한 회원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대구은행장 한시적 겸직

대구은행 이사회 반발로 진통 예고

DGB금융지주가 오는 2020년까지 김태오 회장의 대구은행장 겸직을 결의했다. 하지만 대구은행 이사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차기 자회사최고경영자추천후보위원회(자추위)에서 현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사진)을 DGB대구은행장으로 추천하고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겸직체제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의했다.

DGB금융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거듭 논의를 거친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현재 경영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고, 특히 조직안정과 통합 그리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DGB금융지주 회장인 김태오 회장을 한시적으로 겸직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DGB금융지주 이사회는 은행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2명의 대구은행장 후보를 포함해 6~8명의 후보군을 심의했으나 채용비리, 수성구청펀드보전 등으로 마땅한 후보자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DGB금융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대구은행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을 포함한 6~8명의 역량과 은행장으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채용비리 관련, 비자금 관련, 펀드 손실보전 관련 등으로 인해 현재 마땅한 후보자를 찾기 어려웠고, 고객에 대한 신뢰회복과 DGB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현 DGB금융지주 회장인 김태오 회장을 한시적으로 겸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윤리성, 도덕성, 기업문화 쇄신을 위해선 김태오 회장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DGB금융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에 쇄신과 100년 기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김태오 회장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 "후계양성을 위한 한시적인 겸직인 만큼 내부인재에 대한 철저한 경력개발프로그램(CDP) 관리와 합리적인 인재육성 체계 마련 등을 통해 향후 대내외적으로 존경 받을 만한 차기 은행장 육성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종후보자로 추천된 김태오 회장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추천을 거친 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은행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은행 임추위는 당초 박명흠 전 은행장 직무대행과 노성석 전 지주 부사장을 은행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지주 이사회가 겸직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은행 내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겸직 선임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